

— General Council of IFLA. thirty-sixth session, 1970 —

國際圖書館協會聯盟總會

1970年 第36次

Anthony Thompson
 (IFLA 事務總長) 著
 李 炳 穆 譯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譯者註：이 기사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전 사무총장 Anthony Thompson氏가 General Council of IFLA, thirty-sixth session, 1970란 표제로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25 (March-April 1971), p. 87-90에 기고한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제36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는 1970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쾰른도서관협의회와 문화성의 초청으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으며 그중 2일간은 기타 회의와 도서관 방문 목적으로 레닌그라드에서 속개되었다. 외국으로부터 636명 쾰른에서 111명이 참가한 이번 총회는 전체 참가인원 747명이라는 IFLA 총회 사상 기록적인 숫자를 나타내었다. 참가자들은 40개국으로부터 왔으며 그 가운데는 쾰른 문화성의 초청과 경비지급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의 참가자들도 약간 포함되었다.

총회는 IFLA 회장으로 있는 브르셀 왕립도서관장 H. Liebaers박사의 주재로 8월 31일 개최되었다. 개회사가 있음다음 쾰른 문화성 차관 N. I. Mokhov, 모스크바시의회 부의장 Sisov, IFLA 정회원인 쾰른도서관협의회를 대표한 베닌도서관장서리 Čubarjan이 쾰른과 모스크바방문 환영사를 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 대리 Malcolm Adiseshiah氏는 유네스코를 대표하여 치사를 하였다.

IFLA 회장 Liebaers 박사는 개회사를 통하여 1970년 이 국제교육의 해 (International Education Year 1970)라는 점과 총회의 주제가 '교육의 한 활력소로서의 도서관'(Libraries as a force in education)이란 점에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질적으로 훌륭한 도서관이 없으면 질적으로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펄 벅 여사의 말을 인용하여 도서관이 그 장서를 보다 낮게 이용시킴으로써 그러한 사업을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어 1972년이 유네스코가 계획

하고 IFLA가 심혈을 기울여 협조하고 있는 국제도서관의 해(International Book Year 1972)임을 공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는 1949년에 선포된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의 폭을 넓혀,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팜프렛을 1972년에 발간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맹의 우선 사업으로는 사서 훈련이 강조되었다. 이문제는 덴마크 도서관학교에서 열렸던 1969년 IFLA 총회를 통하여 또 그 총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실은 *Libri* 특집호를 통하여 일선 사서들에게 소개된 바 있다. 그 다음 사업으로서는 '교육구조내에서의 도서관계획'이 강조되었다. 이 문제는 C. V. Penna氏가 1967년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에 기고한 논문에서 그리고 1970년 그 논문을 개정한 제2판을 통해서 제기한 바 있다. 회장은 또 FID와 보다 진밀한 협조, 유네스코와 보다 적극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몇몇 사업계획 일정표를 유네스코와 조정함으로써 IFLA는 개발도상국가의 사서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국제회의에 참가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유네스코의 참가계획(Unesco's Participation Program)에 의한 협조는 이미 성공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그 예로는 1966년 버밍엄에서 있었던 대학도서관세미나와 타쉬켄트에서 개최되었던 도서관발전에 관한 세미나가 있다. IFLA의 다섯 전문 다큐멘테이션센터(*IFLA news*, 1970년 4월 p. 3참조)도 이 유네스코의 참가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무총장은 이어서 미리 배부한 바 있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그의 보고가운데 지난 일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몇몇 중요한 기구상의 발전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먼저, 총회회의록(*Proceedings*)을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연보(*IFLA annual*)로 개제(改題)함과 아울러 그 내용에 충실을 기한 사실을 들었다. 이 일에는 IFLA의 출판국장 Ottervik박사의 공이 가장 컸음을 지적하였다. Thompson氏는 이 연보의 편집자로

서 각 부회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체계적으로 수록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국가별 활동상황을 보다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연맹 정회원으로 하여금 지난일 년동안에 이룩한 도서관 발전에 관해 보다 일반적인 정보를 그들이 연맹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수록하도록 설득하였다. 1971년에 시상될 Sevensma 賞은(논문제출마감은 1970년 12월 31일) 현상 논문 제목을 ‘각국의 도서관봉사를 비교하는데 수반하는 제 문제’(Problems of comparing the library services of different countries)라는 단일 주제로 정하였다. 현재 상당수의 논문이 제출되어 있고 이는 새로 임명된 심사위원들에 의해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 정회원(member-associations)은 현재 85이며 도서관, 도서관학교 등으로 되어 있는 준회원(associate-members)은 지난해 150으로 부터 176으로 증가하였다.

끝으로 IFLA 재무국장 P. Kirkegaard氏가 재정보고를 하였다. 그는 그의 보고가운데 회비 책정 기준을 새로이 정하자는 제안 설명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 새로운 회비 책정 기준은 이미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의 승인을 얻은 바 있다. 지금까지의 회비책정은 융통성이 결여된 정적인 방법으로 또 되는 데로 아무렇게나 해왔으며, 해당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이나 도서관 발전은 조금도 고려에 넣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는 보다 융통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일정한 기준이 되는 다음과 같은 회비 財源으로 구성된 ‘국가단위’로 IFLA가 회비를 책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단위’의 회비를 결정하는 財源으로는 (a) 전문적 도서관협회 (professional library associations) (b) 단체회원 (institutional members) 도서관, 도서관학교 등 (c) 준회원 (associate members) 예컨대 재단, 정부기구 등이 있다. 이 세가지 재원을 합친 것이 국가단위의 회비가 되어야 하고 이는 각국이 유네스코에 납부하는 회비의 1%와 같다. 몇몇 국가의 IFLA회비는 유네스코에 납부하는 회비의 1%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최저금액이어야 한다고 재무국장은 밝혔다.

같은날 오후에는 본 회의가 ‘교육의 한 활력소로서의 도서관’이란 총회의 주제를 가지고 House of Unions에서 열렸다. 소련 문화성 차관 N. I. Mokhov가 지난 50년동안에 걸친 소련의 문맹퇴치와 도서관 발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어 유네스코 사무총장 대리 Malcolm Adiseshiah氏가 국제교육의 해에 즈음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위치와 현시점에서 본 각종 형태의 도서관에 제기된 문제점에 관하여 연설하였다.

이후 3일간은 각 부회와 위원회별로 전문 회의가 열렸다.

부 회

국립 및 대학도서관 부회의 대학도서관 분회는 다음 두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1. 개발도상국가의 대학도서관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유네스코의 보조금으로 그리고 유네스코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2. 총회의 주제를 여러분야로 전문화해서 각 부회의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도서관부회의 병원도서관분회는 1971년 리버풀 총회 직전에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병원도서관직 강습회에 IFLA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도록 재차 요청하였다.

특수도서관부회는 사회과학도서관 분회라고 불리워질 새로운 분회를 두기로 결의하였다. 새 분회는 장차의 사업을 토의하는 가운데 그 첫번째 사업으로 국제경제도서관주소를 편찬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다음에 열거하는 부회와 분회는 각각 당면 문제를 토의하였으나 어떤 결의사항을 통과시키지는 않았다. 즉 국립 및 대학도서관부회, 공공 도서관부회, 아동도서관분회, 천문대도서관분회, 의회 및 행정부도서관부회

위원회

편목위원회 (그전 명칭을 통일편목규칙위원회)는 해제부 목록원칙성명서(Annotated Statement of principles)최종 결정판, 국가명칭 (Names of States) 및 무저자명고전 (Anonymous Classics) 최종판과 표준서지 기술에 대해 그 진척상황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단체저자를 위한 통일 표목표 작성에 대해서는 소련의 A. Khrenkov가 보고를 하였다. 두개의 실무위원회 즉 다작(多作) 저자의 표목에 관한 실무위원회와 기도서의 통일목표에 관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종합목록 및 국제대차위원회는 다음 두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1. 새로 간행될 종합목록 및 국제대차편람(Manual of union catalogues and international loans)의 원고마감을 1970년 11월 1일 까지로 한다.
2. 국제간의 대차문제를 협의하기 위위 15명 정도의 대차센터 대표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간행물교환위원회는 비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Gomboc 박사의 ‘교환의 경제적’(Economic aspects of exchanges)에 관한 보고서를 출판하도록 한다.

2. Dargent여사가 1962년에 펴낸 **간행물 국제교환** ...1817-1960 (*Exchanges inter nationaux de publications...1817-1960*)을 새로이 내기로 한다. 신티안은 Kanevsky氏가 브뤼셀의 왕립도서관과 협조하여 펴내도록 한다.
3.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표준청구서양식을 출판하도록 한다.
4. 유네스코에서 간행한 **간행물국제교환편람** (*Handbook on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숙편을 편찬하도록 한다.

간행물교환위원회와 공간행물위원회는 1958년 이후의 진척상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국가와도 접촉하기 위해 교환센터 대표자 회의가 필요함을 제차 결의하였다. 비엔나 국립도서관은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1972년 부다페스트 총회에 즈음하여 자기 도서관에서 회의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공간행물위원회는 1969년에 착수한 아프리카 도서관 목록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각국의 교환센터에 보낸 실태조사 질문지 작업은 끝났음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질문지를 토대로한 보고서를 발간할 자금을 IFLA에 신청하도록 결의하였다.

정기간행물 및 축차간행물위원회에서는 *Bibliographie des repertoires nationaux deperiodiques en cours*의 숙편 (1966년 12월까지) 편찬 작업이 196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 위원회는 정기간행물목록지침서를 간행할 준비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고 정기간행물 식별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책자가 마련되었음을 밝혔다. 신문장서에 관한 서지가 편찬되어 관계도서관에 배부되어야 한다는 결의사항도 통과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또 도서관용으로 세계일간신문 서목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계 및 표준위원회는 1970년 5월에 있었던 도서관 통계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유네스코회의에 대하여 K. Mallabe氏의 보고를 들었다. F. L. Schick氏는 유네스코를 위해 그가 마련하고 있는 **도서관통계편람** (*Handbook on library statistics*)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앞으로의 사업에 관한 토의, 특히 도서관 이용통계, 도서관 건물 및 시청각 자료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

하다는 결의사항이 통과되었다.

회구 및 귀중도서, 문서위원회는 도서사(圖書史)에 관한 현안국제서목작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후 Antwerp와 모스크바 두곳에서 이 사업을 맡도록 결의하였다. 두번째 결의안으로 국제 도서 및 문서 보존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Preservation of Books and MSS) 창설을 천거하였다. (*IFLA news* 1970년 7월... p. 7 참조)

기계화위원회는 기계제작들에게 보다 적합한 도서관 비품과 도서관에서 쓸 소프트웨어 (software)를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지위원회는 다음 세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1. 가장 적합한 서지 정보 체계의 모델을 작성하도록 한다.
2. 집행위원회는 각 부회와 위원회의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실무위원회(Programme Development Group)에 의해서 협조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사서와 서지가 서지기술과 語典 (thesauri)에 관한 범세계적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도서관 이론 및 연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다.

1. 국제도서의 해와 때를 같이 하여 1972년에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도서와 독서'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제안 할 것.
2. 도서관 연구에 관한 국제다큐멘테이션센터를 설치할 것. 이는 모스크바의 레닌도서관이 책임을 맡도록 요청할 것.
3. 위원회의 실무부서를 설치할 것.
4. 다음과 같은 본 위원회의 간행물 출판을 고려할 것. (a) 위원회 활동소개를 위한 회보. (b) 도서관학의 이론적인 문제를 다룬 총서.

자문위원회와 사업계획실무위원회는 총회기간중 수차의 회합을 가졌다. 여기서는 C. Redijk박사가 기초한 중요문서가 토의 되었는데 이는 모든 회원들에게 제출될예정으로 있다. 그 문서는 1971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리버풀에서 개최되는 다음 총회에 제출될 단기계획의 근거이기도 하다.

(11면에서 계속)

七. 맺는말

위에서 이미 이야기 한것처럼 學術的인 것은 本人이 수집한 資料가 도착하는 대로 정리하여서 다시 報告하겠다. 단지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호주가 단시일내에 世界一流의 美國이나 英國과 맞먹는 정도로 各級 도서관이 발전한데에는 물론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으나 圖書館人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努力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理由中的 하나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東南亞各國을 比較하여

볼 때 우리는 조금만 더 努力한다면 훨씬 더 빨리 훌륭한 도서관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의 要素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알수 있다. 各自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創意力을 발휘한다면 그러한 時期는 더욱 가까운 장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끝으로 이 機會에 發展하는 濠洲의 도서관制度를 視察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濠洲政府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고 또 歸路에 東南亞 各國의 도서관 사정을 觀察할 수 있도록 財政的인 도움을 준 아세아財團에도 감사를 드리는바이다.